

 대통령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		보 도 참 고 자 료 7월 17일(금) (즉시 보도)	
배 포 일	2020. 7. 17/(총 5매)	담당부서	성평등기반과
과 장	최 윤 미	전 화	02-2100-1227
담 당 자	김 민 정		02-2100-1232
	남 효 정		02-2100-1231

육아휴직, 일하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

-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-

-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부위원장 서형수, 이하 ‘위원회’)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7월 20일(월) 오후 3시부터 「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」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.
-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, 위원회 페이스북 채널 (www.facebook.com/betterfuture.kr)을 통해 시청 및 참여가 가능하다.
-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92, 출생아수는 30만 명에 불과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.
- 부모가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, 현행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.

- 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「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(‘18.12)」에서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로 확립하겠다고 밝히고,
 - 그간 육아휴직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장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 및 제안을 듣고,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포럼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.
 - 이를 토대로 위원회 내 일·생활균형분과위원회(위원장 장지연,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)에서 총 8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쳐 개편방안(안)을 모색하였고,
 - 이렇게 마련한 ‘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 방안(일·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)’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주제발제는 일·생활균형분과위원회 간사인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‘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(일·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)’을 발표한다.
 - 산업·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 대상을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
 - 육아휴직 사용을 높이고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급여체계, 사용방식, 재원 등의 개편방안을 제시한다.

<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(일·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) 주요내용 >

	현행 육아휴직제도	개편방안(시안)
대상	▶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	▶ 특수형태고용종사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
급여체계	▶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, 4개월부터는 50% 지원 ▶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	▶ 6개월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계단식 방식으로 재설계 ▶ 소득 기준으로 급여 책정
사용방식	▶ 육아휴직기간 총 1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	▶ 분할 사용 횟수 확대 ▶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
재원	▶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계정 (일반회계 일부 전입)	▶ 실업급여계정과 분리, 별도 회계 구성 (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일부 전입)

- 주제발제에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방송작가, 학습지교사, 예술인 등 현장 당사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, 학계 및 정부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.

* (지정토론 참여자)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, 최복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, 유정민 연극배우,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,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, 김승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

-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(안)을 마련하고,

- 금년 말 발표할 예정인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(2021~2025)’에 반영할 계획이다.

- 서형수 저출산·고령사회 부위원장은 “부모의 고용형태나 지위에 따라 아동의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, 영유아기 일정 기간 동안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·육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[붙임] 「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」 포스터



말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

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



2020. 7. 20.(월) 15:00~17:00

모든 취업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보편적 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합니다.
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
페이스북에서 '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' 를 검색하세요

<https://www.facebook.com/betterfuture.kr>

15:00 ~ 15:15	개 회 식 환 영 사 축 사	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(직무대행) 김상희 국회부의장 한정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
15:15 ~ 15:40	주제발제	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
15:40 ~ 16:30	토 론 좌 장 토 론 자	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 최복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유정민 연극배우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승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
16:30 ~ 16:50	온라인 질의응답	

※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됩니다.

※ 주최



대통령직속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Presidential Committee
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



한국여성정책연구원